



"기획은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제공일 : 2012. 2. 1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과 장 : 배 호 열

사무관 : 김 영 수

전 화 : 500-1787

쪽 수 : 4P

별첨자료 : 있음(10P)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2월 1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난개발 실태에 대해 응답자 63.5%가 심각하다고 인식

-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주 요 내 용 》

◇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실시('12.1.2~10, 전화 설문)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 Point

◇ 응답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인식

○ 응답자의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25%만이 농어촌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

◇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63.5%가 심각하다고 인식

○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난개발을 심각하게 인식
○ 66.8%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 필요 응답

◇ 88%가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위해 농지보전 필요 응답

○ 90.8%는 쾌적한 환경, 산림보호 위한 산지보전 필요성 인식

◇ 63.4%가 토지이용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규제강화가 우세

• 둘 다 똑같이 중요(63.4%) > 규제 강화(22.3%) > 규제 완화(13.0%)

⇒ 경관 보전, 난개발 방지, 농산지 보전과 함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의 필요성 시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인식조사는 농어촌 경관 보전·관리,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농·산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2012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관(주식회사 인포마스터), 조사방법(전화 설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 Point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하지만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는 농경지·마을·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24~27.4%로 낮게 나타남

• 잘 관리되고 있다 : (농경지경관) 27.4%, (마을경관) 26.2%, (자연경관) 24.0%

□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실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매우) 심각하다 63.3% > 보통이다 28.1% > (전혀) 문제없다 7.6%

○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인식

○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창고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선택

• 공장/창고(21.4%) >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 > 대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14.9%) > 축사(13.6%) > 송전탑 및 전기선(12.4%) 등의 순

□ 전체 응답자의 66.8%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매우)필요하다 66.8% > 보통이다 24.0% > (전혀)필요하지 않다 8.1%

○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농어촌 지역 방문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 읍·면 거주자, 농림어업 종사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 전체 응답자의 88%가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90.8%가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농지 : (매우)필요하다 88.0% > 보통이다 9.1% > (전혀)필요하지 않다 2.8%

• 산지 : (매우)필요하다 90.8% > 보통이다 6.9% > (전혀)필요하지 않다 2.3%

○ 농·산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도시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둘 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규제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둘 다 똑같이 중요함(63.4%) > 규제강화(22.3%) > 규제완화(13.0%)

○ 다른 직업군과 달리 농림어업 종사자군은 규제강화 보다 규제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의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뿐만 아니라 지불의사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지불 의사 : 대도시(27.4%), 중소도시(26.7%), 읍·면(22.6%)

• 지불의사금액 : 대도시(29,772원), 중소도시(21,027원), 읍·면(14,105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농어촌 계획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농어촌 공간에 대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금년 중에 농어촌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 시범 운영,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등 농어촌 경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였다.

참고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

I. 농어촌 경관

가. 농어촌 경관의 심미성

Q.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는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 환산시 3.59점으로 농어촌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

* (매우)그렇다 61.4% > 보통이다 28.6% > (전혀)그렇지 않다 9.7%

-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3.66점으로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소도시 거주자는 3.61점, 농어촌 거주자는 3.4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여자(3.66점)가 남자(3.52점)에 비해 농어촌 경관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농어촌 경관의 아름다움을 낮게 평가(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그림 1] 농어촌 경관의 아름다움

나. 농어촌 경관 보존 가치

Q. 귀하께서는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점 만점 환산시 4.05점으로 평가

* (매우)그렇다 86.3% > 보통이다 9.2% > (전혀)그렇지 않다 4.3%

- 지역별로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주민들에 비해 농어촌 경관의 보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도시(4.16점), 중소도시(4.09점), 읍·면(3.8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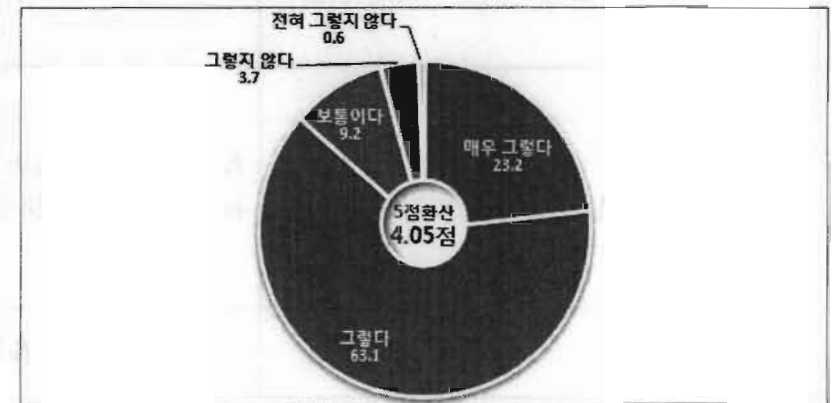
-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가장 높게, 강원·제주권이 가장 낮게 평가

* 충청권(4.25점) > 전라권(4.22점) > 서울(4.12점) > 수도권(4.00점) > 경북권(3.98점) > 경남권(3.92점) > 강원·제주권(3.78점)

-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어촌 경관의 보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졸이상(4.11점), 고졸(4.03점), 중졸이하(3.93점)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농어촌 경관의 보존 가치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음(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그림 2] 농어촌 경관 보존 가치

다. 농어촌 경관 관리에 대한 인식

Q. 귀하께서는 다음의 '농어촌 경관'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논, 밭 등 농경지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주민들이 생활하는 농어촌 마을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산, 하천 등 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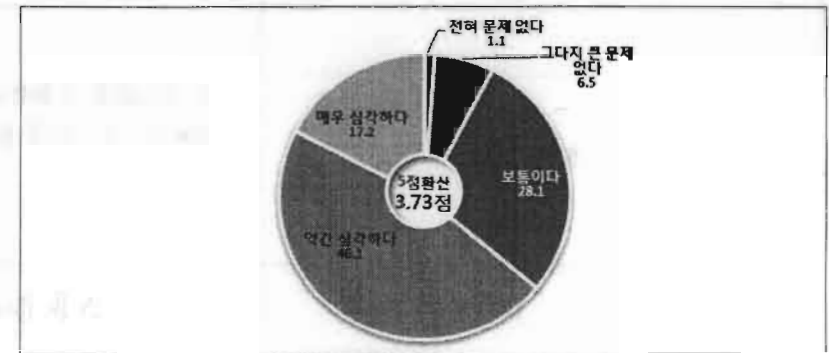
- 응답자의 27.4%가 논, 밭 등 농경지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 환산시 2.98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함
- (매우)그렇다 27.4% > 보통이다 42.1% > (전혀)그렇지않다 29.7%
-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자가 3.03점, 중소도시 거주자는 2.91점, 대도시 거주자는 2.99점으로 농경지 경관 관리에 대해 평가
- 응답자의 26.2%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농어촌 마을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 환산시 2.98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
- 보통이다 44.2% > (전혀)그렇지 않다 28.4% > (매우)그렇다 26.2%
-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자가 3.02점, 중소도시 거주자는 2.93점, 대도시 거주자는 2.98점으로 농어촌 마을 경관 관리에 대해 평가
- 응답자의 24.0%가 산, 하천 등 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 환산시 2.85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
- 보통이다 38.9% > (전혀)그렇지 않다 36.5% > (매우)그렇다 24.0%
-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자가 2.92점, 중소도시 거주자는 2.76점, 대도시 거주자는 2.85점으로 자연 경관 관리에 대해 평가

II. 농어촌 토지이용

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실태

Q. 귀하께서는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무분별한 개발)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63.3%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점 만점 환산시 3.7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됨
- (매우)심각하다 63.3% > 보통이다 28.1% > (전혀) 문제없다 7.6%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어촌 난개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중소도시 3.80점 > 대도시 3.79점 > 읍·면 3.57점
- 권역별로는 서울지역 거주자가 3.81점으로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서울(3.81점) > 전라권(3.76점) > 충청권(3.75점) > 수도·경남권(3.73점) > 강원·제주권(3.62점) > 경북권(3.60점)
-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난개발 실태를 더 심각하게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졸이상(3.82점) > 고졸(3.73점) > 중졸 이하(3.47점)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난개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음(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그림 3] 농어촌 지역 난개발(무분별한 개발) 실태

나. 농어촌 경관 훼손 시설

Q. 귀하께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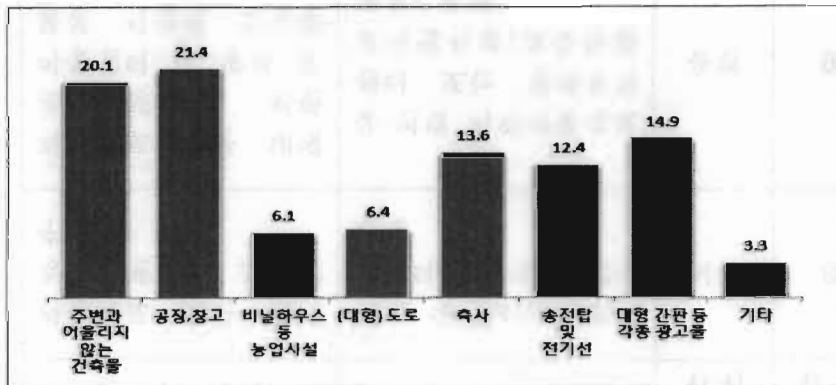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창고(21.4%)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을 선택

* 공장·창고(21.4%) >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 > 대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14.9%) > 축사(13.6%) > 송전탑 및 전기선(12.4%) > (대형)도로(6.4%) >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6.1%)

○ 권역별로는 서울·경북권·경남권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수도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은 공장·창고를, 전라권은 축사를 농어촌 경관 훼손의 주된 시설로 응답

○ 고향이 농어촌 지역인 응답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도시지역인 응답자는 공장·창고를 지정한 응답이 가장 많음

○ 농어촌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축사를, 거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각종 광고물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4] 농어촌 지역 경관 훼손 시설(복수응답)

다. 토지이용 규제강화 필요성

Q. 귀하께서는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66.8%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매우)필요하다 66.8% > 보통이다 24.0% > (전혀)필요하지 않다 8.1%

○ 도시지역 거주자가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도시(3.79점) > 중소도시(3.62점) > 읍·면(3.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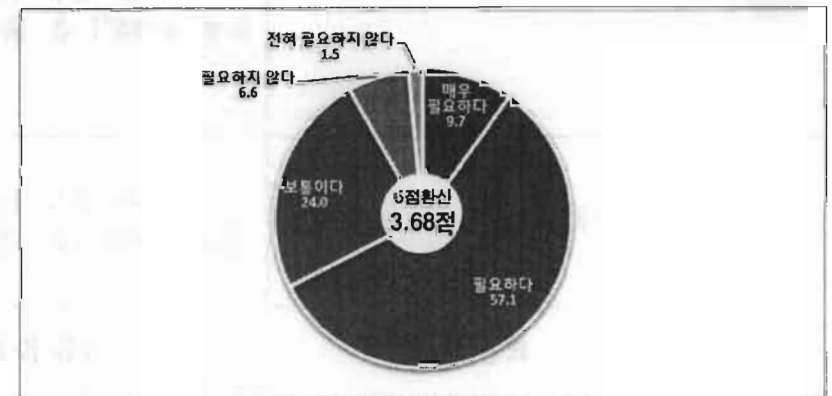
○ 권역별로는 전라권역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권이 3.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전라권(3.97점) > 충청권(3.81점) > 서울(3.72점) > 경남권(3.67점) > 경북권(3.59점) > 수도권(3.56점) > 강원·제주권(3.46점)

○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토지 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졸 이상(3.72점), 고졸(3.71점), 중졸이하 (3.50점)

○ 농림어업 종사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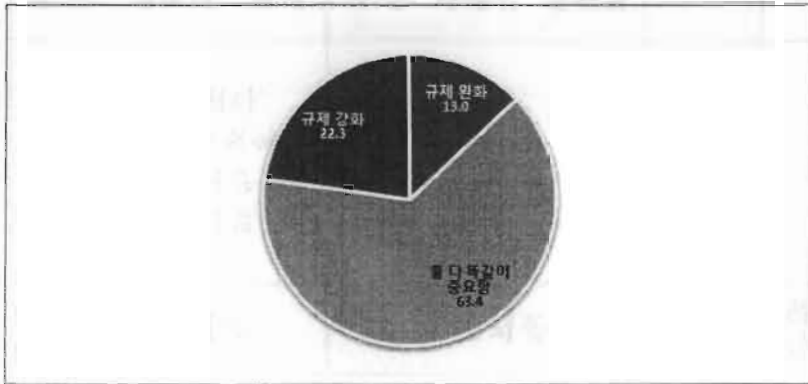


[그림 6] 농어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강화 필요성

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중요도 비교

Q. 귀하께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중 63.4%가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둘 다 중요함(63.4%) > 규제강화(22.3%) > 규제완화(13.0%)
- 지역별로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
 - 규제완화 : 읍·면(17.6%), 대도시(12.2%), 중소도시(8.5%)
- 권역별로 강원·제주권은 규제완화(2.7%)보다 규제강화(27.0%)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농어촌 관광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규제강화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함
- 직업별로는 다른 직업군과 달리 농림어업 종사자군은 규제강화보다 규제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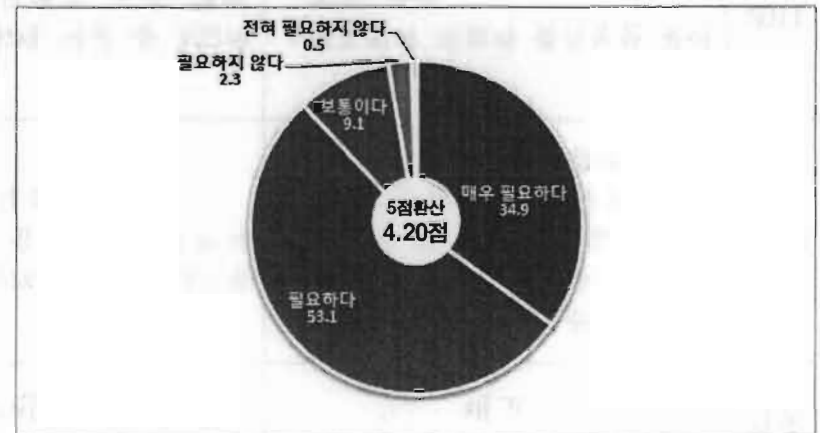
[그림 7] 농어촌 지역 토지이용 규제강화 중요성

Ⅲ. 농지와 산지의 보전

가. 농지 보전

Q. 귀하께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88%가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5점 만점 환산시 4.20점으로 높게 조사
 - (매우)필요하다(88.0%) > 보통이다(9.1%) > (전혀)필요하지 않다(2.8%)
- 지역별로 도시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농지보전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도시 (4.25점) > 중소도시 (4.22점) > 읍·면(4.10점)
- 경남권이 4.43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제주권이 3.89점으로 가장 낮음
 - 경남권(4.43점) > 전라권(4.32점) > 충청권(4.26점) > 서울(4.25점) > 수도권(4.09점) > 경북권(3.96점) > 강원·제주권(3.89점)
- 지역, 고령, 농어촌 거주 경험, 학력, 소득, 직업 등에 관계없이 농지보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그림 8] 농지보전 필요성

나. 산지 보전

Q. 귀하께서는 쾌적한 환경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90.8%가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5점 만점 환산시 4.22점으로 높게 조사

• (매우)필요하다 90.8% > 보통이다 6.9% > (전혀)필요하지 않다 2.3%

○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산지보전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대도시(4.30점) > 중소도시(4.28점) > 읍·면(4.06점)

○ 권역별로 전라권이 4.37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제주권이 3.86점으로 가장 낮음(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전라권(4.37점) > 서울(4.36점) > 경남권(4.31점) > 충청권(4.29점) > 수도권(4.15점) > 경북권(3.89점) > 강원·제주권(3.86점)



[그림 11] 산지보전 필요성

IV. 농어촌 경관의 가치 : 농어촌 경관가치 지불의사금액¹⁾

Q.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귀하의 가정에서는 연간 얼마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_____원

□ 전체 응답자 중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

○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9만원으로 조사(전체 평균은 약 2만 3천원)

○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1~3만원(29.2%) > 10~30만원(27.6%) > 5~10만원(26.5%) > 3~5만원(7.4%) > 1만원 미만·30만원 이상(각각 4.7%)

○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와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지불 의사 : 대도시(27.4%), 중소도시(26.7%), 읍·면(22.6%)

• 지불의사금액 : 대도시(29,772원), 중소도시(21,027원), 읍·면(14,105원)

○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와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관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지불 의사 : 대졸이상(34.8%) > 고졸(21.1%) > 중졸이하(9.3%)

1) 농어촌 경관의 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함